

8개월 공석 여수상의회장 선거 시작됐다

안중식·문상봉·박정일·박형길씨 등 물밑 신경전 “상생·화합” 합의 추대 움직임도... 이달 28일 선출

8개월째 공석인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자리를 놓고 회장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과열경쟁으로 치닫하고 있다. 12일 지역 상공계에 의하면 현재 회장 후보로는 (주)대광솔루션 문상봉 대표, (주)영동E&C 박정일 대표, (주)대도종합건설 박형길 대표, (주)유진기업 안중식 대표 등이 자의반·타의반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문상봉 대표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정일, 안중식 대표도 지지세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길 대표는 주위의 권유에 조용히 관망중인 것

로 전해졌다. 여수상의 회 회원은 “문대표는 가장 많은 표를 갖고 있는 여수산단 회원사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수상의의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치러지는 의원선거에 당선돼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안중식, 박정일 대표도 산단 회원사들을 찾아 조심스럽게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역 상공인들 사이에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회장 후보군들이 소통을 통해 단일후보를 추천해야 한

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수경제계의 특성상 이들 모두 산단 회원사의 하청업과 납품업을 하고 있는 만큼 회장으로 선출될 경우 산단 회원사와 지역 중·소기업들을 하나로 아우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또 산단과 지역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여수시나 중앙정부에 제대로 정책전달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상의 회원사 한 관계자는 “여수상의의 회장은 산단 회원사와 지역상공인 모두가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리드하고, 지역기업의 입장을 중앙에 잘 전달해야 하는 어려운 자리”라며 “뜻있는 지역 상공인들이 이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처럼 상

의회장 선거가 과열양상으로 치닫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지평도가 높은 인물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며 “박람회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현안사업이 산단 회원사 외 지역 중·소기업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덕망있는 인물이 반드시 선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상의의 회장선거를 위한 의원선거 일정을 지난 8일 공고하고, 10일부터 14일까지 의원 후보자 접수에 들어갔다. 현재 상의 의원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여수지역 기업회원의 수는 100여개 업체다. 이들이 회비 납부액에 따라 일정부분의 표를 행사해 23일 40명의 의원(일반의원 35명·특별의원 5명)을 뽑고, 28일 임시 의원총회를 통해 회장과 집행부를 선출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곡성딸기 마라톤대회 재경곡성향우회가 주최한 ‘2012 곡성딸기 마라톤대회’가 11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 근처 디큐브시티공원에서 열렸다. 곡성에서 재배한 딸기를 먹으면서 달리는 이색 행사로 열린 마라톤대회에는 5km, 10km, 하프, 풀코스 등 4개 부문에 100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마라톤 여행기회 제공>

광양항 29층 특급호텔 신축 불투명

市, 다음과 2010년 사업비 1000억 MOU 체결

시공사 삼성물산과 협의 안돼 2년째 착공 지연

광양항에 들어설 특급호텔 사업추진이 2년째 가시적인 성과없이 아직도 불투명하다. 광양시는 지난 2010년 7월 (주)다음과 특급호텔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당시 (주)다음은 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입해 여수 박람회 개최시기에 맞춰 2012년 5월 준공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시공에 참여할 삼성물산간 협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돼 왔다.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광양경제정의 질의에 대해 “항만은 과거 화물하역과 보관기능에서 물류와 위락, 여가를 포함한 종합공간으로 바뀌는 최근의 추세이고, 외국과의 주요 항만도 항만배후 단지에 호텔과 쇼핑몰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며 호텔 신축을 허가했다.

광양시와 광양경제정의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인 지원시설용 부지에 들어설 관광숙박시설 건물을 놓고 협의과정에서부터 삐걱거리는 등 사업 초기부터 우여곡절을 거듭했다. 조만간 광양시와 (주)다음은 특급호텔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 하고 있지만 지역에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양시 박형주 산단지원장은 “시행사 다음은 사전분양을, 시공사 삼성물산은 책임시공과 호텔을 브랜드 운영사에 맡기고 판매·상업시설을 늘리는 등 양측의 이견이 있었지만 최근 조율이 잘돼 입장 정리단계에 있어 곧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 행사를 앞두고 호기를 다

놓친 뒤 뒤늦게 착공하려는 움직임에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호텔 사업자 (주)다음은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춰 2012년 5월 준공하려고 했으나, 현재 부지가 사유지고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해 관리와 허가는 해양환경청이 갖고 있을뿐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어려움과 시공사 선정 등이 겹쳐 사업추진에 난항을 거듭했다”며 “오는 6월에 착공해 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시민 김모씨는 “국제 항만과 산업도시로서 호텔유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자급력이 떨어진 호텔 시행사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광양시의 행정에 신뢰를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에 들어설 특급 호텔에는 110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29층 규모로 304실의 객실을 갖춘 중저급 호텔이 최대 규모이다. /동부취재본부=박형희기자 py4079@

순천정원박물관 호수공원 설계

세계적 명장 英 찰스젠스가 맡는다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물관 장대 호수공원 설계를 세계적 건축가이자 정원 설계가로 명성을 얻고 있는 영국 출신의 찰스젠스가 맡는다. 2만5000㎡ 크기의 호수공원은 섬 한 가운데에 순천의 중심 봉화산을 두고 도심을 지나는 통천을 표현하는 등 순천시 모습으로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찰스젠스 설계팀은 10일부터 14일까지 2차 실무회의를 위해

순천을 방문해 정원박물관 조지위와 함께 호수 중앙 및 주변 언덕부 휴식기 공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위한 세부적 마감 디자인 등 설계작업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순천만 국제 정원박물관 조지위 관계자는 “찰스젠스는 동양적인 선의 요소에 과학적 구조를 가미해 우주적 신비감을 주는 작품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yjy@

보성 녹차 대축제 5월 16일 개최

박람회 연계 셔틀버스 운행

제38회 보성다향제 ‘녹차대축제’가 오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보성차밭 일원인 한국차소리 문화공원에서 개최된다. 12일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돼 42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으며,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 보성녹차’를 주제로 차 만들기 및 찻잎 따기, 햇차 무료시음, 다례시연, 찻사발 만들기, 차밭 1박 2일 체험 등 인기 있는 차 문화 행사, 전시판매, 공연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여수 세계박람회와 연계하기 위해 예년에 비해 열을 가량 늦춰 열린다. 특히 박람회장을 방문한 관광객을 보성으로 유입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행 등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엔 보성만의 특색을 잘 살린 홍보관을 운영해 실시간 축제 소식과 녹차시음 등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차시음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부대행사로는 녹차사진 공모전, 녹차 마라톤, 마라톤 대회, 국제 차 학술 심포지엄, 철쭉행사 등이 열린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전 북

전북 정치권 4·11 총선 벌써 혼탁

최근 부안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1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다. 내부 청렴도는 10점 만점 중 8.43점으로 전국 74개군 가운데 10% 상위인 1등급 1위를 기록했다. 외부 청렴도 점수는 8.39점으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는 여론 조사 업체의

부안군 내부 청렴도 1등 뒷이야기

응역을 통해 지난해 8월 29일 ~ 12월 11일까지 민원인과 공직자, 전문가, 업무 관계자 등 20만1986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과 온라인 외부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같이 부안군의 종합 청렴지수가 전

부에서 머문데다 지난해에 비해서 리사건이 연속으로 터져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2월 부안군이 국민권익위원회 P 사무관을 초청해 청렴을 주제로 특강을 갖던 시점에 부안 격포항 요트 계류장 급유차 유착 의혹사건에 이어 공무원들의 출장비 횡령 사건이 터졌다. 말단에서부터 실정에 이르는 군청 직원 24명이 허위 출장비와 여비 지출 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7000만원을 빼돌려 군민들의 공복(公憤)을 샀다. 청렴은 이제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목에 힘주기 위해 치장하고 자랑하며 군민에게 우쭐대는 액세서리가 아니다. 부패는 국가의 청렴도에 반영되고 국가 발전의 큰 지표로 작용하고 있어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될 전망이다. 부안군은 이번 청렴도 평가 1위 달성을 오히려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hnews@



강철수

공천심사·여론조사 앞두고 상대방 약점 부풀리기

곳곳서 휴대전화 괴문자·비방 유인물 무더기 발송

4·11총선을 58일 앞둔 가운데 전북지역에 괴문자나 유인물을 통한 비방이 확산하면서 혼탁·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12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11개 선거구에 77명이 등록해 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음 달 2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다면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시·완주군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김제시 4명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각 1명씩 모두 6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괴문자나 유인물을 통한 비방이 확산되는 등 부정적인 선

거전이 난무하고 있다. 전주 완산을 선거구에서는 최근 특정 후보들을 겨냥한 휴대전화 괴문자가 무더기로 발송됐다. 지난 10일 ‘과열치한 주가 조작범이 사이버 언론을 매수해 국회의원이 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이 선거구 다수의 유권자에게 발송됐다. 이에 대응하듯 ‘여행사의 로비를 하는 B 후보가 구제역 발생 때 여행사 대표와 외국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문자가 다량 배포됐다. 군산에서도 특정 후보를 겨냥한 유인물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량 살포

됐다. 이들 문자는 컴퓨터를 이용, 가상의 발신 전화번호로 발송돼 추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중앙당의 공천 심사가 임박하자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일부 예비후보 측이 상대방의 약점을 부풀려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노림수로 분석된다. 시민 김모(김제시)씨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과열·혼탁 선거를 조장하는 후보에게서 정치적 소신과 지역민들을 위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란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는 네투 인도수상의 말처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올바르고 존경스러운 정치인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기기자 hnews@

김완주지사 “남원 도시체류형 관광지 조성”

지난 10일 남원시를 방문한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관광루선 주변에 관광타운과 문화예술촌을 만들어 남원을 도시체류형 관광지로 조성, 관광 르네상스를 부흥시키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남원 문체체육관에서 열린 ‘도민과의 희망대화 마당’에서 문화·관광도시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남원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선정될 만큼 자원이 풍부하고 쾌적한 도시”라며 “자원을 충분히 살려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화춘 시장으로부터 지리산 케이블카 남원설치에 대한 건의를 받고 “전북 전체의 중요한 현안으로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기자 bs8787@

뉴스 브리핑

50년 전통 군산 선연초교 마지막 졸업식

학생수 감소로 통·폐합되는 군산 선연초등학교(교장 김진배)가 지난 10일 마지막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장은 졸업생 3명과 학부모, 지역 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보고, 졸업장·장학금 수여, 학교장 회고사, 송·답사(동영상), 졸업식 노래 순으로 40여 분간 진행됐다. /전북취재본부=박익성기자 nogus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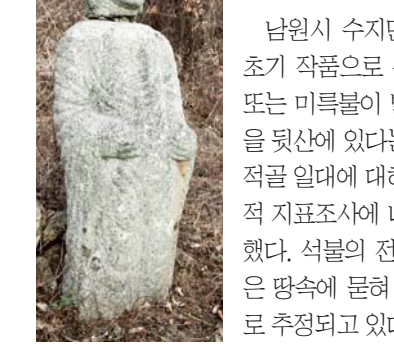
지난 1962년 옥봉초등학교 선연분교로 개원한 선연초는 올해까지 50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2000여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생 수가 급감함에 따라 미공군부대의 확장부지로 편입돼 이번이 통·폐합 학교로 지정됐다. /전북취재본부=박익성기자 nogusu@

익산 시동축제 올부터 민간 문화재단서 개최

익산시가 열어오던 시동축제가 올해부터는 민간 문화재단에 의해 운영된다. 익산시 축제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시동축제를 올해부터 (재)익산 문화재단에 맡겨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동축제가 민간에 위탁됨에

따라 일단 축제의 정체성 논란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축제 기획 등에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독자적이고 특색있는 축제 프로그램의 편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류정경기자 ryu0418@

통일신라말 추정 여래입상 발견



남원시 수지면 유암리에서 통일신라 말~고려 초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문화재급 약사 여래입상이 발견됐다. 남원문화원은 석불이 마을 뒷산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유암리 포함마을 독적골 일대에 대해 탐사를 벌인 결과 학계나 문화유적 지표조사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석불을 발견했다. 석불의 전체 높이는 192cm로 발 아래 부분은 땅속에 묻혀 있어 확인이 어렵지만 2m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기자 bs8787@

남원시 수지면 유암리에서 통일신라 말~고려 초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문화재급 약사 여래입상이 발견됐다. 남원문화원은 석불이 마을 뒷산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유암리 포함마을 독적골 일대에 대해 탐사를 벌인 결과 학계나 문화유적 지표조사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석불을 발견했다. 석불의 전체 높이는 192cm로 발 아래 부분은 땅속에 묻혀 있어 확인이 어렵지만 2m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기자 bs8787@

김제경찰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안전 캠페인

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는 지난 10일 신풍동 비사벌 사거리에서 녹색어린이회, 모범운전자회 등 경찰협력 단체 회원 30여명과 함께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안전을 위한 홍보 교통캠페인을 실시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기기자 hnews@

이번 김제경찰과 회원들은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 및 운전자·운전자 준수사항 등이 담긴 리플렛과 전단지 등 홍보물을 배포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기기자 hnews@